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목 차

■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우리나라의 특구 운영 현황	1
2. 특구 경쟁력 비교 방법 및 대상 선정	2
3.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 결과	6
① 경제적 측면 : 시장의 매력도·투자의 효율성·인프라	6
② 정책적 측면 : 국가 안정성·정치적 안정성·법적 안정성 ·	11
③ 경영환경적 측면 : 투자 환경·세제 여건	13
④ 종합 비교	15
3. 시사점	17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한 상 완 연구총괄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경제연구본부 : 이 해 정 연구위원 (2072-6226, hjlee@hri.co.kr)

< 요약 >

1. 우리나라 특구 운영 현황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유치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이며, 개발 지정 지구에 대한 개발이 지연되고, 입주기업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도 낮아 개발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구와 동아시아 주요국의 특구와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

본 보고서에서는 UNCTAD의 평가 방식을 일부 이용해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경영환경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7개국의 특구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동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 가운데 한국의 대표 특구인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비교 가능한 홍콩, 싱가포르, 대만(카오슝), 중국(심천), 인도네시아(바탐), 말레이시아(이스칸다) 등 6개국 6개 특구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제적 측면) 시장의 매력도 부문에서는 중국 심천(8.1), 싱가포르(5.1), 홍콩(4.6)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의 매력도는 GRDP, 1인당 GRDP, 국가 GDP,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전망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 인천은 3.1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중국 심천(7.2), 말레이시아 이스칸다(6.7), 인도네시아 바탐(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의 효율성은 특구별 인구, 해당 국가별 생산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비중 전망, 고등교육이수율, 특구별 근로자 임금 수준 및 산업용 부지 분양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 인천은 5.6으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6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홍콩(8.2), 싱가포르(7.5), 한국 인천(7.0) 순으로 나타났다. 인프라는 각 특구별 주요 공항·항공 물동량, 해당 국가별 업무용 전기요금, 1인당 전력 소비량, 인터넷·휴대전화 가입자 수, 도로 밀도, 철도 연장, 물류경쟁력지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정책적 측면) 국가안정성 부문에서는 싱가포르(9.7), 홍콩(9.5), 대만 카오슝(7.3)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안정성은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IMD 국가 경쟁력 지수의 정부 효율성 지수를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6.3으로 전체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안정성 부문에서는 싱가포르(10.0), 홍콩(7.8) 대만 카오슝(7.5)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안정성은 World Bank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표의 정치적 안정성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5.9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적 안정성 부문에서는 싱가포르(10.0), 홍콩(9.7), 대만 카오슝(8.3) 순으로 나타났다. 법적 안정성은 World Bank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표 가운데 규제 질, 법치, 부패의 관리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7.8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영환경적 측면) 투자 환경 부문에서는 싱가포르(10.0), 홍콩(9.4), 말레이시아(8.8)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환경은 IMD의 투자 인센티브, 비즈니스 용이성 및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의 투자자보호지수, Heritage재단의 무역자유도를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6.2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 여건은 홍콩(10.0), 인도네시아(6.2), 싱가포르(5.8)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 여건은 사회보장부담비중, World Bank 기업환경평가의 이윤 대비 세율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였다. 한국은 5.1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5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합 평가) 특구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특구지표들로만 구성하여 평가해 본 결과 특구 경쟁력은 중국 심천(5.6), 홍콩(5.4), 싱가포르(5.3), 말레이시아 이스칸다(4.0), 한국 인천(3.7), 인도네시아 바탐(3.3), 대만 카오슝(3.2) 순으로 나타났다. 5위인 한국 인천은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시장의 매력도와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 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인프라 부문을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높은 지대와 임금 등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극복하고 차별화할 만한 투자 유인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동아시아 특구의 경쟁력 비교 결과 >

구분	종합점수	시장의 매력도			투자의 효율성			인프라		
		특구 면적	GRDP 규모	1인당 GRDP	특구 인구	임금 수준	부지 분양가	전기 요금	공항 물동량	항만 물동량
중국(심천)	5.6 (1)	6.8 (3)	8.0 (3)	4.0 (3)	10.0 (1)	5.4 (2)	4.2 (3)	6.4 (4)	2.2 (4)	3.6 (3)
홍콩	5.4 (2)	3.7 (4)	9.2 (2)	6.9 (2)	6.7 (2)	1.1 (6)	1.5 (5)	4.7 (6)	10.0 (1)	5.0 (2)
싱가포르	5.3 (3)	2.4 (6)	10.0 (1)	10.0 (1)	5.0 (3)	1.4 (5)	0.6 (6)	4.1 (7)	4.5 (3)	10.0 (1)
말레이시아 (이스칸다)	4.0 (4)	7.5 (2)	0.6 (6)	1.8 (6)	1.6 (6)	5.1 (3)	10.0 (1)	7.0 (3)	0.1 (7)	2.2 (4)
한국(인천)	3.7 (5)	3.5 (5)	2.0 (4)	3.8 (4)	2.7 (4)	1.0 (7)	2.2 (4)	10.0 (1)	5.9 (2)	2.0 (6)
인도네시아 (바탐)	3.3 (6)	1.4 (7)	0.2 (7)	0.7 (7)	1.2 (7)	10.0 (1)	6.6 (2)	7.8 (2)	0.4 (5)	1.4 (7)
대만 (카오슝)	3.2 (7)	10.0 (1)	1.9 (5)	3.6 (5)	2.6 (5)	1.5 (4)	0.4 (7)	6.4 (4)	0.2 (6)	2.2 (4)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는 각 부문별 순위를 의미, 음영은 각 비교 부문별 1~3위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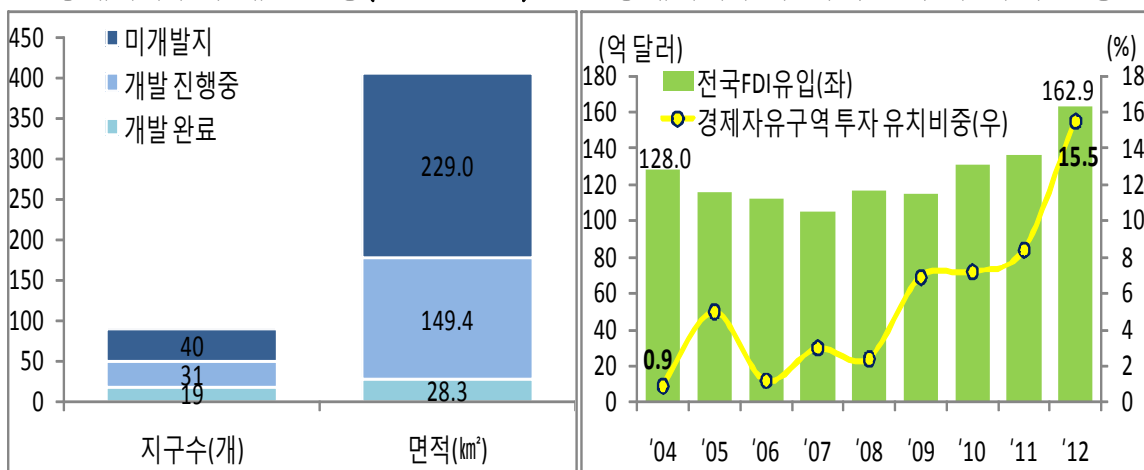
3. 시사점

국내 특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의 매력도 제고는 물론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역을 획기적인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 성공사례화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투자매력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고부가가치산업의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에 초점을 둔 정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 전략적 투자업종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을 점차적으로 축소·완화함으로써 기업 집적을 촉진시켜야 한다. **넷째**, 특구 주변 지역의 혁신기반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혁신성을 제고, 특구 내 부가가치 제고는 물론 지역연관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구 내 비즈니스 및 정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특구의 지속가능발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1. 우리나라의 특구 운영 현황

-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관련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의 특구를 운영중이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을 특구로 정의
-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유치 규모는 크지 않은 수준이며, 개발 지정 지구에 대한 개발이 지연되고, 입주기업 가운데 외국인 투자 기업의 비중도 낮아 개발 실적이 저조
 - 2004~2012년간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총 1,123.6억 달러이나, 이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는 전체 6% 수준에 불과
 - 8개 경제자유구역의 90개 지구 가운데 40개 지구 등 전체 지정 면적 407km²의 56.3%인 229km²가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개발이 지연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은 8.6% 수준에 불과하여 특구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효과 미흡
 - 2013년 현재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2,079개 가운데 외국인 투자기업은 164개에 불과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구와 동아시아 주요국의 특구와의 비교를 통해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2013년 8월) >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



자료 : 기획재정부(2014).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3).
주 : 신고액 기준.

2. 특구 경쟁력 비교 방법 및 대상 선정

- (비교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UNCTAD의 평가 방식을 일부 이용해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경영환경적 측면에서 동아시아 7개국의 특구 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자 함¹⁾
 - 구분 : UNCTAD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결정 요인을 정책적 요인(policy framework), 경제적 요인(economic determinants), 경영환경적 요인(business facilitation)으로 구분
 - (경제적 요인) 시장 매력도(market attractiveness), 투자의 효율성(availability of low cost labour and skill), 인프라 구축 정도(enabling infrastructure)로 구분
 - 시장 매력도는 시장 규모, 구매력, 성장성 등을 의미하며, 투자의 효율성을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제공, 낮은 지대 등을 의미하며, 인프라는 물류 관련 인프라 구축 정도 등을 의미
 - (정책적 요인) 국가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등으로 구분
 - 국가신용등급, 정부의 효율성, 규제 질, 부패의 관리 등을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음
 - (경영환경적 요인) 투자 환경, 세제여건 등으로 구분
 - 소액투자자보호지수, 무역자유도, 세제여건평가지표 등을 활용하여 분석
 - 지수화 방법 : 비교 세부지표는 각 지표별 최고 수준을 10으로 모든 개별 지표들을 지수화한 후 각 지표별로 산술평균하여 각 부문별 점수를 산출
 - 각 부문별 평균에는 경제적 측면에 50%, 정책적 측면에 25%, 경영환경적 측면에 25%의 가중치를 부여한 가중평균을 구해 종합 점수를 산출
 -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표를 지역 지표의 대리 변수로 활용
 - 본 연구에서는 특구지표만을 비교·분석한 '특구지표로 본 경쟁력'과 특구지표와 국가지표를 종합 비교·분석한 '특구 및 국가지표로 본 경쟁력'을 분석하여 특구 경쟁력을 종합 평가하고자 함

1) World Investment Report(UNCTAD, 각호), 「아시아 주요 신흥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분석」(한국은행, 2013), 「아시아권 생산기지의 투자 환경 비교」(현대경제연구원, 2013) 등을 참고.

< 부문별 비교 항목 및 세부 지표 >

부문	비교항목	세부 지표	자료
경제적 측면 (50%)	시장의 매력도	특구 면적	IMF, 각 특구 홈페이지
		GRDP 규모	
		1인당 GRDP	
		GDP 규모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전망	
	투자의 효율성	특구별 인구	각 특구 홈페이지
		생산가능인구 비중	UN
		생산가능인구 비중 전망	IMD
		고등교육이수율	JETRO
		근로자 임금 수준	JETRO
		산업용 부지 분양가	
	인프라	인터넷 이용자수	IMD
		휴대전화 가입자수	
		업무용 전기요금	JETRO
		공항 물동량	ACI
		항만 물동량	WSC
		물류경쟁력지수(LPI)	World Bank
정책적 측면 (25%)	국가 안정성	국가신용등급	국제금융센터
		정부의 효율성	IMD
	정치적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World Bank
	법적 안정성	규제의 질	
		법치	
		부패의 관리	
경영환경적 측면 (25%)	투자환경	투자 인센티브	IMD
		비즈니스 용이성	
		투자자보호지수	World Bank
		무역자유도	Heritage Foundation
	세제여건	사회보장부담비중	JETRO
		이윤 대비 세율 (Doing Business)	World Bank

주 : 1) 세부지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일 항목 내 다른 지표 점수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2) 음영 부분은 각 특구 지표를 의미.
 3)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지표를 특구 지표의 대리 변수로 활용.

○ 비교 대상

- 동아시아 주요국의 특구 경쟁력 비교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IFDI*: Inward FDI) 상위 10개국(stock 기준)을 선정
 - 2013년 동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은 홍콩,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임
- 이 가운데 한국의 특구와 비교 가능한 홍콩,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등 7개국을 선정
- 한국의 대표 특구는 2004~2012년간 전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의 60%에 달하는 40.97억 달러가 집중된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
 -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42% 수준인 876개 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집중되어 있음²⁾

< 동아시아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개국(2013년) >

(단위 : 백만 달러)

Flow 기준			Stock 기준		
순위	국가	투자액	순위	국가	투자액
1	중국	123,911	1	홍콩	1,443,947
2	홍콩	76,633	2	중국	956,793
3	싱가포르	63,772	3	싱가포르	837,652
4	인도네시아	18,444	4	인도네시아	230,344
5	태국	12,946	5	태국	185,463
6	말레이시아	12,306	6	일본	170,929
7	대한민국	12,221	7	대한민국	167,350
8	베트남	8,900	8	말레이시아	144,705
9	필리핀	3,860	9	베트남	81,702
10	대만	3,688	10	대만	63,448

자료 : UNCTAD.

2) 산업통상자원부(2013) 및 기획재정부(2014) 참고.

○ 동아시아 주요 특구 개요

- 한국의 대표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과 비교 가능한 홍콩, 중국(심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바탐), 말레이시아(이스칸다), 대만(카오슝) 등 7개국 7개 지역을 선정
- 홍콩과 싱가포르는 국가 전체가 특구로 지정되어 개발, 대만 카오슝은 1966년 가장 먼저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이스칸다는 2006년으로 가장 늦게 특구로 지정됨
- 대만 카오슝의 면적이 2,946km²로 가장 넓으며, 인도네시아 바탐의 면적이 415km²로 가장 좁음
- 인구는 중국 심천이 2012년 기준 1,063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인도네시아 바탐이 123만 명으로 가장 적음

< 동아시아 주요 특구 개요 >

구분	홍콩	싱가포르	대만 (카오슝)	중국 (심천)	인도네시아 (바탐)	말레이시아 (이스칸다)	한국 (인천)
설립시기 (년)	1997	1965	1966	1979	1989	2006	2003
면적 (km ²)	1,104	697	2,946	1,991	415	2,217	1,032
인구 (만 명, 2012년 기준)	717	535	277	1,063	123	174	284
개발 목표	금융, 교역, 서비스 허브	금융, 교역, 서비스 허브	제조업 중심 수출 가공구	제조업 중심 수출 가공지역	제조업 중심 수출 가공지역	서비스 및 지식 기반산업 개발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스 허브

자료 : 각 특구 공식 홈페이지.

- 주 : 1) 홍콩은 주권 반환 시기를 설립시기로 표기.
- 2) 대만 카오슝의 인구는 2013년 기준, 카오슝시 전체 인구임.
- 3) 중국 심천의 인구는 2013년 기준, 심천시 전체 인구임.
- 4) 한국 인천은 인천광역시의 면적과 인구를 의미.

3.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 비교 결과

① 경제적 측면 : 시장의 매력도, 투자의 효율성, 인프라

○ 시장의 매력도 : 한국 인천의 시장 매력도는 3.1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가 장 낮은 수준

- 시장의 매력도는 중국 심천(8.1), 싱가포르(5.1), 홍콩(4.6) 순으로 나타남
- 한국 인천은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경제성장률 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GRDP 측면에서 시장 규모나 구매력 부문에서는 싱가포르, 홍콩, 중국(심천) 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GDP 측면에서는 중국(심천), 한국(인천), 인도네시아(바탐) 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성장성 측면에서는 중국(심천), 인도네시아(바탐), 말레이시아(이스칸다) 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동아시아 주요 특구 시장의 매력도(2013년 기준) >

구분	GRDP (명목, 억 달러)	1인당 GRDP (명목, 달러)	GDP (명목, 억 달러)	경제성장률 (%)	경제성장률 전망 (2013~2019 (E), %)	시장의 매력도
홍콩	2,740	37,955	2,740	2.9	3.4	4.6 (3)
싱가포르	2,979	55,182	2,979	3.9	3.1	5.1 (2)
대만(카오슝)	554	20,000	4,891	4.2	3.8	4.3 (4)
중국(심천)	2,370	22,000	94,691	10.5	6.9	8.1 (1)
인도네시아(바탐)	49	4,000	8,703	8.4	5.7	3.2 (6)
말레이시아(이스칸다)	172	9,900	3,132	5.6	5.1	3.8 (5)
한국(인천)	591	20,800	13,045	2.4	3.8	3.1 (7)

자료 : IMF, 각 특구 공식 홈페이지, 각 국가 통계청.

주 : 1) ()는 7개 비교특구 내 순위를 의미.

2) 경제성장률 전망은 각 국가별 성장률 전망을 의미.

3) 대만 카오슝은 2011년 기준임.

○ 투자의 효율성 : 한국 인천의 투자 효율성은 5.6으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6위 수준

-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중국 심천(7.2), 말레이시아 이스칸다(6.7), 인도네시아 바탐(6.3)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한국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임금 및 산업용 부지 분양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
- 생산가능인구 : 홍콩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나 향후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가장 낮으나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교육 수준 : 인적자본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고등교육 이수율을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72.0%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인도네시아는 10.0%로 인적 자본의 질적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동아시아 주요국 투자의 효율성 >

구분	인구 (만 명, 2012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비중 (201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 전망 (2030년)	고등교육 이수율 (2011년)	투자의 효율성
홍콩	717	75.0	60.9	45.2	5.8 (5)
싱가포르	535	73.6	65.2	72.0	6.1 (4)
대만(카오슝)	277	75.0	-	61.0	5.5 (7)
중국(심천)	1,063	73.5	68.0	26.9	7.2 (1)
인도네시아(바탐)	123	65.2	68.5	10.0	6.3 (3)
말레이시아(이스칸다)	174	67.5	68.1	30.9	6.7 (2)
한국(인천)	284	72.7	63.0	64.0	5.6 (6)

자료 : UN, IMD, 각 특구 공식 홈페이지, 각 국가 통계청.

주 : 1) ()는 7개 비교특구 내 순위를 의미.

2) 인구는 각 특구별 인구, 생산가능인구 비중 및 전망, 고등교육 이수율은 각 국가별 비중을 의미.

3) 고등교육 이수율은 25-34세 인구 가운데 종합대학, 교육대학, 기술대학 등 초급대학 이상의 교육에 취학한 학생의 비율을 의미.

-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1년 기준 64.0%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수준임
- 근로자 임금 : 인도네시아 바탐이 177 달러로 가장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 심천도 329 달러로 여전히 근로자 임금 수준이 낮아 값싼 노동력에 대한 이점을 보유
 - 한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임금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 한국은 1,734 달러로 인도네시아 바탐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월평균 근로자 임금 수준이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높음
- 산업용 부지 분양가 : 201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산업용 부지 분양가는 m²당 67 달러로 가장 낮은 수준이나, 대만은 이의 25배에 달하는 m²당 1,662 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
 - 한국은 m²당 311 달러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동아시아 주요 특구의 투자의 효율성(2012년 기준) >

구분	근로자 임금 수준(달러)		산업용 부지 분양가(달러/m ²)	
	2006	2012	2006	2012
홍콩	1,412	1,619	244	445
싱가포르	663	1,230	242	1,108
대만(카오슁)	1,042	1,143	771	1,662
중국(심천)	316	329	38	159
인도네시아(바탐)	113	177	58	102
말레이시아(이스칸다)	221	344	11	67
한국(인천)	1,632	1,734	281	311

자료 : JETRO.

주 : 1) ()는 7개 비교특구 내 순위를 의미.

2) 대만 카오슁, 말레이시아 이스칸다, 한국 인천은 자료 미비로 각국의 수도인 타이페이, 쿠알라룸푸, 서울을 기준으로 작성.

3) 월평균 근로자 임금은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도시 전체의 평균 근로자 임금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용 부지 분양가 역시 특정 건물 및 부지의 분양가를 조사한 것으로 도시 전체의 평균적인 분양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인프라 : 한국 인천의 인프라는 7.0으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

- 인프라 부문에서는 홍콩(8.2), 싱가포르(7.5), 한국 인천(7.0) 순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 바탐(4.2)과 중국 심천(4.9)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낙후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인천은 업무용 전기요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공항의 물동량이 전세계 4위를 차지하는 등 인프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ICT :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
 -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이용자수는 인도네시아가 250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인구 1,000명당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중국이 808명으로 가장 낮았음
- 전력 인프라 :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상대적으로 낙후
 - 1인당 전력 소비량도 인도네시아가 1인당 680kwh로 가장 낮음
 - 업무용 전기요금은 한국이 1kwh당 0.07달러로 가장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바탐이 0.09달러로 저렴한 수준임

< 동아시아 주요국의 인프라 >

구분	인터넷 이용자수 (1,000명당, 2013년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수 (1,000명당, 2012년 기준)	1인당 전력소비량 (kwh/명, 2011년 기준)	업무용 전기요금 (달러/kwh, 2012년 기준)	인프라
홍콩	863	2,292	5,949	0.15	8.2 (1)
싱가포르	870	1,521	8,404	0.17	7.5 (2)
대만(카오슝)	792	1,265	-	0.11	5.4 (4)
중국(심천)	399	808	3,298	0.11	4.9 (6)
인도네시아(바탐)	250	1,142	680	0.09	4.2 (7)
말레이시아(이스칸다)	702	1,413	4,246	0.10	5.4 (4)
한국(인천)	858	1,094	10,162	0.07	7.0 (3)

자료 : IMD, World Bank, JETRO.

주 : 1) ()는 7개 비교특구 내 순위를 의미.

2) 인터넷 이용자수, 휴대전화 가입자수, 1인당 전력소비량은 각 국가별 수준을 의미. 업무용 전기요금의 경우 대만(카오슝), 말레이시아(이스칸다), 한국(인천)은 각국의 수도를 기준으로 작성.

- 공항 :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화물 물동량을 처리하는 홍콩국제공항과 세계 4위 수준의 인천국제공항은 높은 항공화물 물동량 처리 능력을 보유
 - 말레이시아 이스칸다가 속한 조호바루 주의 세나이 국제공항과 대만 카오슝 국제공항의 항공화물 물동량 처리 실적은 미미한 수준임
- 항만 : 싱가포르 세계 2위, 홍콩 11위 등 인도네시아 바탐을 제외한 모든 특구들이 세계 35위권 내의 물동량 처리 능력을 보유
- 도로·철도 : 도로 및 철도연장의 경우 싱가포르와 홍콩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인도네시아는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평가
- 물류경쟁력지수 : 2014년 기준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는 싱가포르가 4.00으로 전세계 5위이며, 홍콩이 3.83으로 전세계 15위임
 - 중국은 3.53으로 세계 28위 수준, 인도네시아는 3.08로 세계 53위 수준
 - 한국은 3.67로 세계 21위 수준이며,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에는 4위 수준임

< 동아시아 주요 특구의 인프라 수준 비교(2012년 기준) >

구분	공항 물동량 (만 M/T), 2013년 기준)	항만 물동량 (만 M/T)	도로 밀도 (km/km ²)	철도연장 (km/km ²)	물류경쟁력 지수(LPI, 2014년 기준)
홍콩	416.2(1)	26.9(11)	1.89	0.214	3.83(15)
싱가포르	188.6(12)	53.8(2)	4.79	0.249	4.00(5)
대만(카오슝)	6.9(-)	12.1(30)	1.17	0.047	3.72(19)
중국(심천)	91.3(24)	19.6(16)	0.44	0.007	3.53(28)
인도네시아(바탐)	15.1(-)	-(-)	0.27	0.002	3.08(53)
말레이시아(이스칸다)	3.7(-)	11.6(32)	0.55	0.007	3.59(25)
한국(인천)	246.4(4)	11.0(34)	1.06	0.037	3.67(21)

자료 : ACI, WSC, IMD, World Bank.

주 : 1) 도로 밀도와 철도 연장, 물류경쟁력지수는 각 국가별 수준을 의미.

2) ()는 세계 순위를 의미.

3) 말레이시아 이스칸다의 공항은 조호바루 주의 세나이 국제공항, 항구는 조호바루 주의 탄중 펠레파스 항구를 의미.

4) 인도네시아 바탐의 대표 항구인 batu ampar항은 세계 100위인 영국 southampton항 38,107톤에 미치지 못하는 물동량을 처리.

5) 물류경쟁력지수 LPI는 5점 만점임.

② 정책적 측면 : 국가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 국가 안정성 : 한국의 국가 안정성은 6.3로 전체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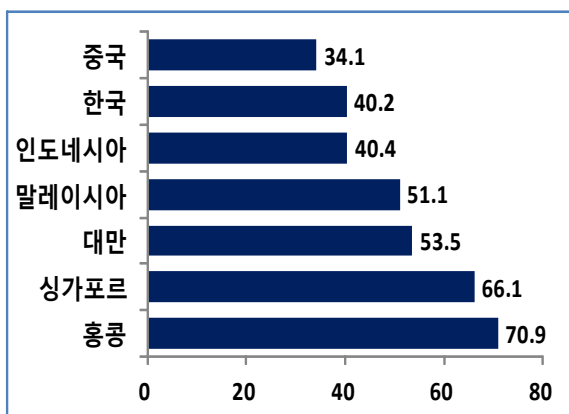
- 국가 안정성 부문에서는 싱가포르(9.7), 홍콩(9.5), 대만 카오슝(7.3)의 순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 바탐(3.4)과 중국 심천(5.9)은 각각 국가신용등급과 정부 효율성 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 안정성이 낮게 나타남
 - 한국의 신용등급은 Aa3(Moody's)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3번째 수준이나, 정부 효율성 지수는 6번째로 매우 낮은 수준임
- 국가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싱가포르가 Aaa 등급(Moody's)으로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
 - 한편, 인도네시아는 Baa3등급으로 투자 부적격 등급은 아니나 투자 적격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나타남
- IMD가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지수의 정부 효율성 부문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홍콩이 70.9로 60개 조사국 가운데 2위이며, 싱가포르가 66.1로 4위를 차지
 - 반면, 한국은 40.2에 그쳐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27위 수준이며, 중국은 34.1로 34위임

< 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안정성 >

구분	Moody's	S&P	Fitch	안정성
홍콩	Aa1	AAA	AA+	9.5 (2)
싱가포르	Aaa	AAA	AAA	9.7 (1)
대만	Aa3	AA-	A+	7.3 (3)
중국	Aa3	AA-	A+	5.9 (5)
인도네시아	Baa3	BB+	BBB-	3.4 (7)
말레이시아	A3	A-	A-	5.6 (6)
한국	Aa3	A+	AA-	6.3 (4)

자료 : 국제금융센터.
 주 : 1) ()는 7개 비교특구 내 순위를 의미.
 2) 2015년 3월 검색 기준.

< 정부 효율성 지수(2013년 기준) >



자료 : IMD.
 주 : 100점 만점 기준임.

○ 정치적·법적 안정성 :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은 5.9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위이며, 법적 안정성도 7.8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위 수준

- 정치적 안정성은 싱가포르(10.0), 홍콩(7.8), 대만 카오슝(7.5)의 순으로 나타남
 - 중국 심천(2.8), 인도네시아 바탐(3.0)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법적 안정성은 싱가포르(10.0), 홍콩(9.7), 대만 카오슝(8.3)의 순으로 나타남
 - 인도네시아 바탐(3.9), 중국 심천(4.4)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규제의 질 부문에서는 싱가포르가 100.0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규제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콩은 99.5로 세계 2위로 나타남
 - 반면, 중국은 42.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도 46.4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법치 측면에서도 싱가포르가 95.3으로 가장 높았으며, 홍콩도 91.0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인도네시아는 36.5로 가장 낮았으며, 중국도 39.8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부패의 관리 부문에서도 싱가포르가 96.7로 가장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콩도 92.3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인도네시아는 31.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도 46.9로 부패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동아시아 주요국의 정치적·법적 안정성(2013년 기준) >

구분	정치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규제의 질	법치	부패의 관리	법적 안정성
홍콩	74.4	7.8 (2)	99.5	91.0	92.3	9.7 (2)
싱가포르	95.7	10.0 (1)	100.0	95.3	96.7	10.0 (1)
대만(카오슝)	72.0	7.5 (3)	84.7	83.9	72.7	8.3 (3)
중국(심천)	27.0	2.8 (7)	42.6	39.8	46.9	4.4 (6)
인도네시아(바탐)	28.9	3.0 (6)	46.4	36.5	31.6	3.9 (7)
말레이시아(이스칸다)	47.9	5.0 (5)	72.3	64.5	68.4	7.0 (5)
한국(인천)	56.9	5.9 (4)	79.9	78.7	70.3	7.8 (4)

자료 : World Bank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주 : 1) ()는 7개 비교특구 내 순위를 의미.

2) 100점 만점 기준임.

③ 경영환경적 측면 : 투자 환경, 세계 여건

○ 투자 환경 : 한국의 투자 환경은 6.2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

- 투자 환경은 싱가포르(10.0), 홍콩(9.4), 말레이시아(8.8) 순으로 나타남
- IMD 국가경쟁력 지수 가운데 해외 투자자가 투자에 매력을 느끼는지 여부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부문에서 싱가포르가 2014년 기준 2위, 홍콩이 9위로 평가
 - 한국은 5.07로 45위 수준이며,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낮은 7위 수준
- IMD 국가경쟁력 지수 가운데 규제에 의한 투자 저해 여부에 대한 비즈니스 용이성 부문에서 싱가포르가 2014년 기준 2위, 홍콩이 3위로 평가
 - 한국은 3.43로 45위 수준이며,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낮은 7위 수준
-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국가 순위를 나타내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의 투자자보호지수를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2014년 기준 세계 2위, 홍콩은 3위의 높은 수준으로 평가
 - 한국은 6.0으로 세계 52위 수준이며,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5위 수준
- 헤리티지 재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무역자유도(Index of Economic Freedom)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자유도가 세계의 1, 2위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 한국은 71.2로 세계 31위이며,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위 수준

< 동아시아 주요국의 투자환경(2014년 기준) >

구분	투자 인센티브	비즈니스 용이성	Doing Business 투자자 보호지수	Heritage Foundation 무역자유도	투자환경
홍콩	7.01(9)	7.63(3)	9.0(3)	90.1(1)	9.4 (2)
싱가포르	8.10(2)	8.34(2)	9.3(2)	89.4(2)	10.0 (1)
대만(카오슝)	5.47(38)	5.73(17)	6.3(34)	73.9(17)	7.1 (4)
중국(심천)	6.63(17)	5.14(29)	5.0(98)	52.5(137)	6.4 (6)
인도네시아(바탐)	6.62(19)	5.56(22)	6.0(52)	58.5(100)	6.9 (5)
말레이시아(이스칸다)	7.68(4)	7.32(6)	8.7(4)	69.6(37)	8.8 (3)
한국(인천)	5.07(45)	3.43(45)	6.0(52)	71.2(31)	6.2 (7)

자료 : IMD, World Bank Doing Business, Heritage Foundation.

- 주 : 1) 투자 인센티브 및 비즈니스 용이성은 10점 만점 기준. ()는 IMD 60개 조사국 내 순위를 의미.
- 2) Doing Business 투자자보호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임. ()는 전세계 순위를 의미.
- 3) Heritage Foundation의 무역자유도는 100점 만점 기준임. 100~80점은 자유로움, 79.9~70점은 거의 자유로움, 69.9~60점은 대체로 자유로움, 59.9~50점은 거의 자유롭지 않음, 49.9~40점은 억압됨을 의미.
- 4) 투자환경의 ()는 7개 비교특구 내 순위를 의미.

○ 세계 여건 : 한국은 5.1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5위 수준

- 세계 여건은 홍콩(10.0), 인도네시아 바탐(6.2), 싱가포르(5.8)의 순으로 나타남
 - 중국 심천(2.7)은 세계 여건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회보장부담비중은 중국 심천이 2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인천도 2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반면, 홍콩은 5% 수준으로 부담이 가장 낮았으며, 인도네시아 바탐 역시 9.5%로 낮은 수준
- 법인세율은 홍콩이 16.5%로 가장 낮으며,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25%로 높은 수준
 - 한국의 법인세율은 22%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수준
- 소득세율 역시 홍콩이 17%로 가장 낮으며, 중국이 45%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대만도 40%로 높은 수준
 - 한국의 소득세율은 38%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준
-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의 이윤 대비 세율을 살펴보면 홍콩은 2014년 기준 세계 4위, 싱가포르는 5위의 높은 수준으로 평가
 - 인도네시아는 137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 중국도 120위로 낮은 순위
 - 한국은 27.9%로 세계 25위이며,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3위 수준

< 동아시아 주요 특구의 세계 여건(2012년 기준) >

구분	사회보장 부담비중(%)	법인세율 (%)	소득세율 (%)	Doing Business 이윤 대비 세율(%) (2014년 기준)	세계여건
홍콩	5.0	16.5	17	22.9(4)	10.0 (1)
싱가포르	16.0	17	20	27.1(5)	5.8 (3)
대만(카오슝)	11.9	17	40	35.0(58)	5.4 (4)
중국(심천)	28.3	25	45	63.7(120)	2.7 (7)
인도네시아(바탐)	9.5	25	30	32.2(137)	6.2 (2)
말레이시아(이스칸다)	13.0	25	26	36.3(36)	5.1 (5)
한국(인천)	25.0	22	38	27.9(25)	5.1 (5)

자료 : JETRO, World Bank Doing Business.

- 주 : 1) 대만 카오슝, 말레이시아 이스칸다, 한국 인천은 자료 미비로 각국의 수도인 타이페이, 쿠알라룸푸르, 서울을 기준으로 작성.
 2) 사회보장부담비중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사회보장부담비의 비중을 의미하며, 높을수록 기업활동에 불리.
 3)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을 의미.
 4) Doing Business 이윤 대비 세율의 ()는 전세계 순위를 의미. 이윤 대비 세율이 낮을수록 기업활동에 유리하여 순위가 높음.
 5) 세계여건의 ()는 7개 비교특구 내 순위를 의미.

④ 종합 비교

○ 특구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특구지표들로만 구성하여 평가해 본 결과, 한국 인천은 3.7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5위 수준

- 특구 지표에 대한 비교 결과 중국 심천(5.6), 홍콩(5.4), 싱가포르(5.3), 말레이시아 이스칸다(4.0), 한국 인천(3.7), 인도네시아 바탐(3.3), 대만 카오슝(3.2) 순으로 나타남
- 1위인 중국 심천은 시장의 매력도,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인프라 부문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나타냄
 -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 특구 인구는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임금 수준도 인도네시아 바탐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임
- 5위인 한국 인천은 인프라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시장의 매력도와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 하위 수준을 보였음
 - 인프라 부문 가운데 업무용 전기요금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 근로자 임금 수준은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동아시아 특구의 특구지표 비교 결과 >

구분	종합 점수	시장의 매력도			투자의 효율성			인프라		
		특구 면적	GRDP 규모	1인당 GRDP	특구 인구	임금 수준	부지 분양가	전기 요금	공항 물동량	항만 물동량
중국(심천)	5.6 (1)	6.8 (3)	8.0 (3)	4.0 (3)	10.0 (1)	5.4 (2)	4.2 (3)	6.4 (4)	2.2 (4)	3.6 (3)
홍콩	5.4 (2)	3.7 (4)	9.2 (2)	6.9 (2)	6.7 (2)	1.1 (6)	1.5 (5)	4.7 (6)	10.0 (1)	5.0 (2)
싱가포르	5.3 (3)	2.4 (6)	10.0 (1)	10.0 (1)	5.0 (3)	1.4 (5)	0.6 (6)	4.1 (7)	4.5 (3)	10.0 (1)
말레이시아 (이스칸다)	4.0 (4)	7.5 (2)	0.6 (6)	1.8 (6)	1.6 (6)	5.1 (3)	10.0 (1)	7.0 (3)	0.1 (7)	2.2 (4)
한국(인천)	3.7 (5)	3.5 (5)	2.0 (4)	3.8 (4)	2.7 (4)	1.0 (7)	2.2 (4)	10.0 (1)	5.9 (2)	2.0 (6)
인도네시아 (바탐)	3.3 (6)	1.4 (7)	0.2 (7)	0.7 (7)	1.2 (7)	10.0 (1)	6.6 (2)	7.8 (2)	0.4 (5)	1.4 (7)
대만 (카오슝)	3.2 (7)	10.0 (1)	1.9 (5)	3.6 (5)	2.6 (5)	1.5 (4)	0.4 (7)	6.4 (4)	0.2 (6)	2.2 (4)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는 각 부문별 순위를 의미, 음영은 각 비교 부문별 1~3위를 의미.

○ 특구 및 국가지표 종합 비교 결과, 한국 인천은 5.8로 비교 대상 특구 가운데 5위 수준

- 특구 경쟁력에 대한 종합 비교 결과 홍콩(8.2), 싱가포르(7.9), 대만 카오슝(6.2), 말레이시아 이스칸다(6.0), 한국 인천(5.8), 중국 심천(5.3), 인도네시아 바탐(4.8) 순으로 나타남
- 1위인 홍콩은 정책적 측면의 국가 안정성(9.5), 정치적 안정성(7.8), 법적 안정성(9.7) 부문에서 모두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경영환경적 측면에서도 투자환경(9.4) 및 세율(10.0)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 5위인 한국 인천은 경제적 측면의 인프라(7.0)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경영환경적 측면의 투자환경(6.2)과 세제여건(5.1)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냄
 - 한국 인천은 인프라 부문에서 3위를 기록하였으나, 투자환경 측면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낮은 순위를 기록
 -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 인센티브 부문에서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높은 지대와 임금으로 투자의 효율성도 낮아 이를 극복하고 차별화할 만한 투자 유인을 갖추어야 함
- 6위인 중국 심천은 경제적 측면의 시장의 매력도(8.1) 부문에서는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정책적 측면의 정치적 안정성(2.8) 부문과 경영환경적 측면의 세제 여건(2.7) 부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냄

< 동아시아 특구에 대한 특구 및 국가지표 종합 비교 결과 >

구분	종합점수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경영환경적 측면	
		시장의 매력도	투자의 효율성	인프라	국가 안정성	정치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투자 환경	세제 여건
홍콩	8.2 (1)	4.6 (3)	5.8 (5)	8.2 (1)	9.5 (2)	7.8 (2)	9.7 (2)	9.4 (2)	10.0 (1)
싱가포르	7.9 (2)	5.1 (2)	6.1 (4)	7.5 (2)	9.7 (1)	10.0 (1)	10.0 (1)	10.0 (1)	5.8 (3)
대만 (카오슝)	6.2 (3)	4.3 (4)	5.5 (7)	5.4 (4)	7.3 (3)	7.5 (3)	8.3 (3)	7.1 (4)	5.4 (4)
말레이시아 (이스칸다)	6.0 (4)	3.8 (5)	6.7 (2)	5.4 (4)	5.6 (6)	5.0 (5)	7.0 (5)	8.8 (3)	5.1 (5)
한국(인천)	5.8 (5)	3.1 (7)	5.6 (6)	7.0 (3)	6.3 (4)	5.9 (4)	7.8 (4)	6.2 (7)	5.1 (5)
중국(심천)	5.3 (6)	8.1 (1)	7.2 (1)	4.9 (6)	5.9 (5)	2.8 (7)	4.4 (6)	6.4 (6)	2.7 (7)
인도네시아 (바탐)	4.8 (7)	3.2 (6)	6.3 (3)	4.2 (7)	3.4 (7)	3.0 (6)	3.9 (7)	6.9 (5)	6.2 (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는 각 부문별 순위를 의미, 음영은 각 비교 부문별 1~3위를 의미.

3. 시사점

- 국내 특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의 매력도 제고는 물론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
 -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획기적인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성공사례화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전체의 투자매력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특구 경쟁력 비교 결과 한국은 경영환경적 측면에서 투자 환경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투자 환경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획기적인 규제완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특구 성공사례화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둘째, 고부가가치산업의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에 초점을 둔 정책 마련 및 추진이 필요
 - 앵커기업이란 일정한 기술, 자금, 인력을 갖춰 특구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을 의미
 - 싱가포르의 Pioneer Incentive³⁾와 말레이시아의 Pioneer Status Incentive⁴⁾ 등과 같이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선도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현금지원 절차 간소화 및 규모 확대 등 인센티브 확대·개선 조치 마련
 - 셋째, 국가 전략적 투자업종에 대한 국내기업 역차별을 점차적으로 축소·완화함으로써 기업 집적을 촉진

3) 싱가포르 선도기업 인센티브(Pioneer Incentive) : 새로운 산업기술과 지식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을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15년 이상 꾸준한 수익 창출 시 15년간 법인세 전면 면제.

4) 말레이시아 개척자 자격 인센티브(Pioneer Status Incentive) : 제조업 부문에서 개척자 자격을 부여받은 회사는 5년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법정 소득액의 3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됨.

- 홍콩·싱가포르·중국·대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모든 비교 대상 특구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정책적 중요도에 따라 국내외기업 동일하게 인센티브 부여
 - 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조세감면 등의 특혜를 부여하기 보다는 전략산업군에 해당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내·외국기업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점차적인 정책 변경을 도모
 -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국외투자를 국내로 유턴시킬 수 있으며, 이와 연계된 외국인 투자 유치도 용이할 것으로 기대
- 넷째, 특구 주변 지역의 혁신기반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혁신성을 제고, 특구 내 부가가치 제고는 물론 지역연관효과를 극대화
- 싱가포르의 One North Project⁵⁾와 말레이시아의 New Iskandar Malaysia⁶⁾와 같은 긴밀한 산학연 연계 정책 설계
- 다섯째, 특구 내 비즈니스 및 정주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특구의 지속가능발전 전을 보장
- 규제 철폐, 인센티브 지원 체계 강화와 함께, 일, 생활, 놀이, 연구, 학습 등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단지 구성을 고려

동북아·통일연구실 이해정 연구위원 (02-2072-6226, hjlee@hri.co.kr)

5) 싱가포르 One North Project : 2001년 발표된 계획으로 북위 1도 지점에 모든 바이오메디컬, 정보통신(ICT), 미디어등 주요 성장동력산업시설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임.

6) 말레이시아 New Iskandar Malaysia : 2007년 발표된 프로젝트로 창조 산업, 교육 서비스, 재정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의료 서비스, 물류 서비스, 여행 관련 산업 등 6개의 특별 서비스 산업을 타겟으로 함.

< 참고 1 >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관련 특구 현황

-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 관련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3가지 경제특구를 운영중임
- 경제자유구역 :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 등 복합개발방식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국제비즈니스도시를 조성(약 20년 내외 개발기간 소요)
 -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2013년 동해안, 충북 등 총 8개 구역을 지정·운영중
- 자유무역지역 : 일정규모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
 - 1970년 마산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7개의 산단형 자유무역지역(마산·군산·대불·동해·울촌·울산·김제)과 6개의 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인천국제공항·부산항·광양항·인천항·평택당진항·포항항)을 운영중
-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지정한 지역
 - 2014년 현재 단지형 24개(임대형 4개 포함), 개별형 66개 등이 운영중임

< 외국인 투자 관련 3개 경제특구 비교 >

구분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형	물류형	단지형	개별형
법적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03 제정)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70 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98 제정)	
지정 위치	시·도지사 요청지역	항만·공항주변 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유통단지 등	산업단지내	외국인 투자자 희망 지역
입주 자격	국내/외투기업	* 국내(수출 주목적)/외투기업 /물류기업 제조수출 50%↑(중견 40%, 중소 30%), 도매 수출입물량 50%↑ (중견 40%, 중소 30%)		외투자분 30%이상 (대불공단 표준형 10%)	제조업(3천만 달러) 관광업(2천만 달러) 물류업(1천만 달러) 연구개발(2백만 달러 이상 투자)

자료 : 기획재정부(2014).

○ 2004~2012년간 전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의 60%에 달하는 41억 달러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집중

-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42% 수준인 876개 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집중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

(단위 : 억 달러)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총계
전국FDI유입	128.0	115.7	112.5	105.2	117.1	114.8	130.7	136.7	162.9	1,123.6
인천	0.01	0.76	0.86	1.28	1.18	5.62	5.02	5.54	20.70	40.97
부산·진해	0.51	2.31	0.43	0.93	1.11	0.50	1.53	2.51	2.20	12.03
광양만권	0.64	2.76	0.2	0.96	0.01	0.02	0.3	2.32	1.27	8.50
항해	-	-	-	-	-	0	0	0	0	0
대구경북	-	-	-	-	-	0	0.25	0.23	0.51	0.99
새만금·군산	-	-	-	-	-	2.16	1.50	1.00	0.5	5.17
합계 (비중, %)	1.2 (0.9)	5.8 (5.0)	1.3 (1.2)	3.1 (3.0)	2.3 (2.4)	7.9 (6.9)	9.5 (7.2)	11.5 (8.4)	25.2 (15.5)	67.8 (6.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3).

주 : 신고액 기준.

< 경제자유구역 개발 현황(2013년 8월) > < 경제자유구역 기업 입주 현황(2013년) >

구분	합계 (A)	개발 완료	개발 진행중	미개발지 (B)	구분			
					제조업	비제조업	합계	
지구수(개) (미개발 비중, %)	90 (44.4)	19	31	40	인천	51	775	826
					외투	6	44	50
면적(km ²) (미개발 비중, %)	407.0 (56.3)	28.3	149.4	229.0	부산·진해	567	-	567
					외투	25	33	58
					광양만권	60	19	79
					외투	13	26	39
					항해	9	-	9
					외투	-	-	-
					대구경북	10	55	65
					외투	-	1	1
					새만금·군산	359	10	369
					외투	16	-	16
합계 (비중, %)					국내	1,056	859	1,915
					외투	60 (5.7)	104 (12.1)	164 (8.6)

자료 : 기획재정부(2014).

주 : 미개발 비중은 B/A를 의미.